

사무엘기상·하에 나오는 다섯 주요 인물에서 볼 수 있는
좋은 땅을 누리는 것과 관련된
영적인 원칙과 생명의 공과와 거룩한 경고

성경: 삼상 2:27-30, 35, 3:21, 12:3-5, 23, 18:1-4, 23:16-18, 9:1-2, 17, 13:13-14,
15:19, 23, 16:1, 12-13, 30:6하-10, 26:19하, 삼하 11:1-27

- I. 이론의 계통에 따른 낡은 제사장 직분은 엘리 때에 진부해지고 기울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삼상 2:12-30),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시작을 갖기 원하셨다.
- A. 우리는 모두 진부함과 낡음과 미지근함과 교만에 속한 모든 것을 거절하고, 주님께 대해 우리 자신을 비어 있고, 열려 있고, 신선하고, 새롭고, 살아 있고, 젊은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갈망과 하나 되어야 하는데, 주님의 갈망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점유됨으로 그리스도를 살아 내어, 그리스도의 몸을 유기적으로 건축하는 것이다 — 계 3:15-22, 눅 18:17, 빌 3:7-14, 갈 1:15-16, 2:20, 4:19, 엡 4:16.
- B. 엘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였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거의 다 사라졌다(삼상 3:1).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면서 해야 하는 일 중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다(출 28:30).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유일하고 건강한 가르침을 말해 내는 사람이어야 한다 (딤후 1:3-4, 6:3).
- C. 엘리는 사무엘에게 “오, 여호와님! 말씀하십시오. 이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말하도록 가르쳤다. 주님을 위해 말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히 여기고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께서 갈망하시는 것과 애호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 삼상 3:9-10, 21, 사 50:4-5.
- D. 엘리는 자신의 악한 두 아들을 느슨하게 징계함으로써 제사장 직분을 경시하였다(삼상 2:28-29). 이로 말미암아 비극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그의 역사가 끝난 것, 좋은 땅에 대한 그의 누림이 종결된 것, 그리고 신성한 계시 곧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일에서 제사장 직분이 쇠퇴한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엘리에게서 교훈을 배워, 하나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매우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12(계속)

II.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신분과 직무에서 하나님께 신실하였다.

- A. 레위인으로서 사무엘은 온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고, 나실인으로서 실패 없이 자신의 헌신을 지켰다(삼상 2:35). 제사장-신언자로서 사무엘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위해 말했고, 신언자 직분의 시작을 가져옴으로 신성한 계시에 있어서 기울어져 가는 제사장 직분을 대치하였다. 사사로서 그는 하나님께 신실하고 백성에게 공정함으로 사사 직분을 끝내고 왕의 직분을 이끌어 와,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 시대를 바꾸었다.
- B.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던(요 5:17, 고후 6:1상) 사무엘은 여호와의 신언자로 세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말하게 되었다(삼상 3:9-10, 20-21). 우리는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갖도록’(계 2:7)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마리아의 본을 따라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눅 10:38-42).
1. 마리아는 다른 누군가의 발이 아닌, 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경배하며,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2.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았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겸손한 위치에 자신을 두었다. 겸손은 우리 자신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다. 겸손은 우리 자신을 무시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3. 마리아는 앉아 있었다. 주님의 임재에서 벗어날 정도로 분주한 사람들의 생각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우유부단하다. 그러한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 위해 반드시 자신을 멈추어야 한다.
 4.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영과 생명이다(요 6:63).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은 주님께 그분 자신을 그녀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분 자신을 그녀 안으로 분배하실 기회를 드렸다. 그 결과 마리아는 주님 자신을 얻을 수 있었다.
- C. 사무엘은 온 일생 동안 좋은 땅에 대한 자신의 몫을 최대한으로 누렸다. 따라서 우리는 신약의 의미에서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관해 조금의 결함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무엘의 역사에서 유일한 결점은 그가 자신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사사로 임명한 것이었다 — 삼상 8:1-3.
1. 사무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평생 순수하고 올바르게 행동한 것과는 반대로 부당하게 행동하였다(삼상 12:3-5, 23).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모든 민족처럼

사무엘기상·하

메시지 12(계속)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임명해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할 빌미를 주었다(삼상 8:1-7). 그러므로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사로 볼 수 없고(행 13:20), 그들의 아버지인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보아야 한다.

2. 인간의 측면에서는 사무엘이 이 문제에서 실수를 한 것이지만, 이 실수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왕의 직분을 이끌어 오심으로써 그분의 백성 가운데 있는 상황을 다루실 수 있으셨다.

III.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이 왕이 되고 왕국이 그의 왕국이 되리라고 예견했다 — 삼상 18:1-4, 19:1-7, 20:8, 14-17, 41-42, 23:16-18.

- A. 사울의 의도는 요나단을 위해 왕국을 보존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요나단은 왕국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다윗이 보좌에 올라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 B.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에게 이것에 관해 말한 다음 아버지를 떠나 다윗과 함께했어야 했다. 성경의 예표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따르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께 으뜸의 지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 골 1:18하, 계 2:4.
- C.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땅에서 자신의 몫을 합당하고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가 자기 아버지를 향한 천연적인 애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자기 아버지 곁에 머물렀는데, 그 결과 그는 비극적으로 자기 아버지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여 전쟁터에서 아버지와 함께 죽었다 — 삼상 31:2-6.
- D. 요나단은 사울과 다윗 사이에 섰다. 그는 한 사람으로서 두 사역 사이에 서 있었다. 그는 두 번째 사역을 따랐어야 했지만, 첫 번째 사역과 너무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1. 매 시대마다 주님께는 성취하기 원하시는 특별한 일들이 있으시다. 주님은 그분 자신이 회복하셔야 할 것들과 이루셔야 할 일들이 있으시다. 한 시대에서 주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특정한 회복과 일이 그 시대의 사역이다 — 비교 창 6:13-14.
 2. 다윗은 그 시대의 사역을 가진 그의 시대의 사역자였다(행 13:21-22, 36상). 구약에서 노아는 방주를 건축하는 그 시대의 사역을 가졌고, 모세는 성막을 건축하는 그 시대의 사역을 가졌으며,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 시대의 사역을 가졌다.
 3. 시대의 사역을 가진 시대의 사역자는 지방적인 사역자들과 다르다. 루터는 그의 시대의 사역자였고, 다비 또한 그의 시대의 사역자였다. 이 현시대의 사역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상을 볼 필요가 있다. 미갈은 다윗과 결혼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12(계속)

너는 단지 다윗의 외적인 상태만 보고서 그것을 참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뒤처지게 되었다 — 삼하 6:16, 20-23.

4. 신약에서 주 예수님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마 16:18). 주님의 승천 안에서 산출된 은사 있는 많은 사람에게는 오직 한 사역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공급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은 은사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직접 성취되지 않고, 은사 있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직접 성취된다(엡 4:11-12, 16).
5.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건축하는 사역에는 그 사역을 인도하는 이들이 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려면 이 시대의 주님의 사역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6. 어떤 사람이 시대의 사역을 보고 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지만, 그 사람이 용기를 내어 과거의 사역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현재의 사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 비교 삼상 14:1-46, 삼하 6:16, 20-23.
7. 시대의 사역은 현재의 진리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급한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현재의 진리’는 ‘최신의 진리’로도 번역될 수 있다. 주님의 모든 일꾼은 현재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쭙어보아야 한다 — 마 16:18, 엡 4:15-16, 계 2:7, 11, 17, 26-29, 3:5, 12, 21, 시 48:2, 계 19:7-9, 21:2.

IV.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무엘에게서 기름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 삼상 9:1-2, 17, 10:1, 24.

- A.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어도 두 번 불순종했으며, 그 결과 자신의 왕권과 왕국을 잃어버렸다(삼상 13:13-14, 15:19, 23, 28:17-19). 사무엘기상 15장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사실상 그는 하나님께 반역하였다.
- B. 이 장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거역하는 것은 짐을 치는 죄와 같고 / 고집을 피우는 것은 우상숭배와 드라빔과 같습니다.”(23상절)라고 말했다. 짐을 치는 것은 악한 영들을 접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거역했을 때 사울이 한 일은 짐을 치는 그러한 죄와 같았다. 그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의 왕권을 잃어버렸다.
- C. 사울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것은 전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경륜과 합당한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 가운데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사울을 그분의 경륜 안으로 이끄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고 동역하기보다는 이

사무엘기상·하

메시지 12(계속)

기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강탈하여 자신의 군주국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사울은 왕권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했으며, 어떻게 하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을 것인지를 고려하였다 — 삼상 20:31.

- D. 이 문제에서 사울은 이기적이었으며 크게 잘못하였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포기하시고 그를 잘라 내셨으며 왕국을 찢어 내시어 그에게서 가져가 버리셨다(삼상 15:28). 하나님께서 사울을 포기하셨으므로 사울은 고아와 같이 홀로 남게 되었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 E. 사울의 이기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족속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패배하고 살육당하였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들도 죽음을 맞았다. 사울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위한 왕국을 얻으려는 야심이 있었고 또한 다윗을 시기하였으므로,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땅을 누리는 것은 중단되고 끝나게 되었다 — 삼상 20:30-34.
- F.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병이 일시에 죽은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분의 권위를 찬탈하여 그분의 원수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공정한 심판이었다(대상 10:13-14). 우리는 사울의 비극적인 최후를 통하여,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공과와 우리의 이기심 곧 사리사욕을 거절하는 공과를 배워야 한다(갈 5:24, 마 16:24, 빌 2:3).
- G. 사울의 끔찍한 최후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결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별도의 일을 하거나 왕국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경고가 된다. 우리는 사울처럼 우리 자신을 위한 ‘군주국’을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왕국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이 유일한 한 가지 일을 해야 한다 — 삼상 31:1-13.

V.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선택받고 기름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 삼상 16:1, 12-13.

- A.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후에 이스라엘 여인들에게서 사울보다 더 높이 칭송을 받았지만(삼상 18:7), 다윗에게서 우리는 그가 교만하게 되었다거나 왕권에 대한 야심을 갖게 되었다는 어떤 암시도 볼 수 없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박해받는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할 적격자로 인정받았다.
- B. 다윗은 사울의 박해 아래 있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합당한 질서를 지켰음을 가리킨다 — 삼상 24, 26장, 비교 롬 12:3.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12(계속)

- C.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볼 때, 분명 다윗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복수하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다 — 삼상 13:14상.
- D.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좋은 땅을 누리는 면에서 참된 이스라엘 자손의 전형적인 본이다. 다윗은 모든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또한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다윗은 좋은 땅에 머물며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고 그분을 섬기기를 기대했다 — 삼상 17:36-37, 23:14-16, 30:6하-10, 26:19하.
- E. 다윗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왕권을 얻고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된 한 왕국을 다스릴 정도로, 높은 수준에서 좋은 땅을 충만하게 누릴 자격이 있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였다. 그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것은 그의 것이었다. 다윗과 하나님에게는 오직 하나의 왕국이 있었다.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예표인 좋은 땅을 극도로 누린 것이다.
- F.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는데, 다윗 집안은 점점 강성해져 갔으나 사울 집안은 점점 쇠약해져 갔다’(삼하 3:1).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의 왕국을 높이셨다(삼하 5:6-25). 더 나아가 “다윗은 갈수록 강성해졌으며,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셨다.”(삼하 5:10)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 G. 어떤 일에서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내적인 느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의 길에 우리의 길을 재고해 보아야 한다(삼상 16:14).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무언가를 할 때마다, 반드시 주님의 임재의 느낌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다음 두 가지를 주의하는 공과를 배워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내적인 임재와 우리 환경에 있는 외적인 확증이다(비교 삼하 5:11-12).
- H. 더 나아가, 우리 모두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다윗에게서 배워야 한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파괴적인 요소이다. 다윗처럼 경건한 사람이 유혹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유혹을 피할 수 있겠는가? — 삼하 11:1-27, 비교 딤후 2:22, 고전 6:13, 18.
1. 우리가 영적인 추구에서 이룬 업적과 관계없이, 우리 중 어떤 사람도 이러한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 기록을 진지하게 읽어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육체의 방종에 빠지는 것이 엄중한 일임을 우리에게 경고한다. 다윗은 단지한 번 쳐다봄으로 유혹을 받아 자신을 절제하는 데 실패했다.

사무엘기상·하

메시지 12(계속)

2. 모든 성도들, 특별히 청년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성찰하여, 절대로 육체의 방종에 빠지는 길을 가지 않겠다고 마음으로 굳게 결심해야 한다(삿 5:15-16). 우리는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받아들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역동적인 구원이 되실 것이다.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이 시대의 더러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며 보호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얻은 영광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